

[전체공지]

교황님 기도 지향

<선교 지향> 사랑과 대화의 언어가 언제나 갈등의 언어를 이기도록 기도합니다.

※ 11 월 4 일 주일 부터 Daylight saving time 이 끝납니다.

[잭슨빌]

- 오늘 친교후에 연도와 묘지참배가 있습니다.
- 이번주일 수요일미사는 신부님께서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미주 광주교구 사제회의 관계로 없겠습니다.
- 다음주일 미사후에 성모회의 있습니다. 안건은 단톡방에 올리겠습니다.
- 11 월에 영명축일을 맞이하시는 강성미 세실리아 (11 월 22 일), 이교순 카타리나(11 월 26 일), 이종수 안드레아, 함동진 안드레아 (11 월 30 일)님 축하 드립니다.
- 11 월 18 일 주일미사후에 사목회장 선출을 위한 신자총회가 있습니다.

[게인즈빌]

- 11 월 평일 미사는 11 월 9 일 에만 있습니다.
- 주일학교 선생님 봉사자 외에도 미사 봉사자 (해설, 독서, 뒷정리, 음향, 성가대)를 수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담당자 분들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공동체	주일봉헌금	교 무 금	건축헌금	기 타	총 계
게인즈빌	\$143	\$200	-	-	\$343
잭슨빌	\$259	\$660	-	-	\$919



聖 최경환 프란치스코 한인 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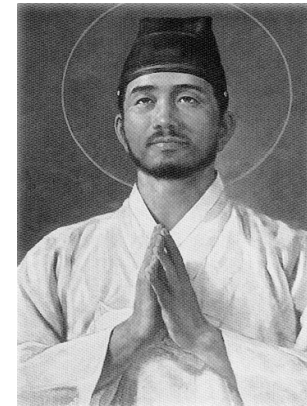
St. Francis Choe Korean Catholic Mission

주임신부 김영수 스테파노 (904) 525-4809

성당 (904) 573-1833

잭슨빌 성당 St. Francis Choe Catholic Mission, 8051 Rampart Rd. Jacksonville, FL 32244

게인즈빌공동체 St. Patrick Parish, 550 NE 16th Ave. Gainesville, FL 32601



聖 최경환(崔京煥) 프란치스코(1805-1839)

잭슨빌 한인 성당		게인즈빌 한인 가톨릭 공동체	
주일 미사	일요일 오전 10 시 30 분	특전 미사	토요일 오후 7 시
평일 미사	매주 수요일 오후 8 시, 첫째 금요일 성체현시 및 미사	평일 미사	둘째, 넷째 금요일 오후 7시30 분 성가대 연습실
성령 기도	매주 금요일 오후 8 시	성령 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9 시 30 분
성프란치스코 기도회	매주 (목) 오전 11 시	레지오	-
성시간	첫째 주 금요일 미사 후	주일학교	매주 토요일 미사 후
예비자 교리	매주 주일 미사 후	예비자 교리	매주 토요일 미사 후
사목회의	첫째 주 주일미사후	사목회의	첫째 주 특전 미사 후
사목회장	어인수 안토니오 (904) 866-0708	사목회장	천창준 레오 (860) 906-6567

www.stfccm.org

https://www.facebook.com/St.FrancisChoe

오늘의 묵상

우리는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마치 우리가 마시는 공기처럼, 날마다 받는 햇살처럼 하느님께서서는 나보다 더욱 내 곁에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지만, 때로는 너무 가까이 계셔서 그분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때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첫째 계명, 곧 “이스라엘아, 들어라!”로 시작하는 신명기의 위대한 계명을 상기시키십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 존재의 시작과 마침이 하느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때로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있지만, 마음이 흔들릴 때 언제나 하느님께 도움을 청해야 하고, 목숨 걸고 잃지 않으려는 내 재산과 명예, 건강만큼이나 하느님께 기도하는 시간과 봉헌의 몫을 바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올바른 믿음을 간직하려면 정신을 헛된 것에 쓰지 않고 성경과 교리 공부도 해야 하고, 삶에 지쳐서 쓰러지더라도 힘을 내서 일어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런 하느님 사랑의 첫째 계명은 이웃 사랑을 통하여 완성됩니다. 사랑은 마음이나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은 내가 교리를 잘 몰라서도 아니고, 성경 지식이 짧아서도 아닙니다. 내가 만나는 이웃들, 특히 교회 생활에서 만나는 사제와 수도자, 신자들은 물론, 가족과 직장 동료, 일상에서 부딪히는 이웃들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무너질 때 신앙도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길은, 피하고 싶은 내 이웃을 용서하고 이해하며, 기다려 주고 돌보아 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이웃이 되어 주고 있습니까? (송용민 사도 요한 신부)

< 8. 찬미하여라 >



Bless the Lord, my soul, and bless God's ho - ly name.
찬 미 하 여 라 오 나 의 영 혼 아 -



Bless the Lord, my soul, who leads me in - to life.
찬 미 하 여 라 거 룩 한 주 이 름

연중 제 31 주일

[제 1 독서] 신명기 6,2-6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

[화답송] 시편 18(17),2-3 ㄱ.3 ㄴ.ㄷ-4.47 과 51(◎ 2)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제 2 독서] 히브리서 7,23-28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영구한 사제직을 지니십니다.>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시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알렐루야

[복음] 마르코 12,28 ㄱ.ㄷ-34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전례 봉사자>

공동체		해 설	제 1 독서	제 2 독서	봉 헌
이 번 주	게인즈빌 (11/3)	최건화 안젤라	천창준 레오	천하일 미카엘	-
	잭슨빌 (11/4)	윤미임 데레사	조종래 미카엘	조의단 아네스	이교순 카타리나 이문자 모니카
다 음 주	게인즈빌 (11/10)	이호석 레오폴드	천희제 레아	천송희 스텔라	-
	잭슨빌 (11/11)	이교순 카타리나	이재민 토마스	최차숙 마리아	조종래 미카엘 조의단 아네스

<미 사 성 가>

공동체	입 당	봉 헌	성 체	파 견
게인즈빌	136	158	581	139
잭슨빌	19	342	174	27